

N/A

Press release  
*My Character*  
Hardy Hill  
6.14 - 7.14.2024

N/A는 6월14일 부터 7월 14까지 뉴욕을 베이스로 작업하는 하디 힐의 전시 <My Character>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첫번째 서울 개인전으로 단편 소설 모음집 *How Did You Get in the Building?* 을 포함하여 신작 11점을 선보인다.

조이 윌리엄스의 이야기 "The Visiting Privilege"에서는 남편의 죽음 이후 가택 침입을 두려워하는 노년 여성이 'Safe-T-Man'이라는 풍선식 마네킹을 구매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Safe-T-Man'은 인공 동반자이자 침입자를 막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다. 환상은 위안과 동반감을 주지만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고립감을 더한다.

하디 힐에게 이미지는 물체와 같으며, 수동적이고 무생물이다. 누군가를 그리는 것은 그들을 물체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미지는 유령 같고, 시체 같으며, 사람 없는 몸 처럼 보인다. 이미지는 환상처럼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공포를 조성하기도 한다. 최소한의 설명적 표현과 연극적 지시로 수정된 *Illuminated Figure 1-3* / 밝혀진 인물 1-3 은 위엄있지만 어딘가 부적합한 포즈로 '집 안에 사람이(Safe-T-Man) 있다'는 양면성을 전보한다.

홈 보안 기술, 특히 'mockupancy' 대한 관심에서(집을 비울때 조명을 켜 도둑을 방지하는 기술)의 시작된 *Rational Theater scored for home security system* / 가정 보안 시스템을 위한 이성적 극장 설치(The Broken Jug)은 인물이 없는 연극이다. 6개의 램프는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1806-1811년 희곡 "The Broken Jug (깨진 주전자)"에 등장하는 6명의 캐릭터에 해당한다. 각 조명은 해당 캐릭터가 '무대 위에' 있을 때 켜지고, 캐릭터가 퇴장하면 다시 꺼진다. 연극적 대상은 일련의 조명 세트의 활성화와 비활성화로 인코딩된 일련의 존재와 부재(입구와 출구)라는 구조적 최소로 축소된다. 작품들은 종종 연극 무대처럼 정면 시점에서 행동을 표현하는데 이는 관객을 관음증자의 입장에 놓이게 한다.

*How Did You Get in the Building?*에는 실존하지만 실존하지 않는 인물들이 습관적으로 등장한다. 하디의 사진, 프로필을 받은 각 유명 작가에 욕망에 따라 변경 되는 판타지 세계속 "나의 캐릭터"들은 언어에서 이미지로, 기이하면서 익숙하지 않는 "나의 캐릭터"로 번역된다.

하디 힐(1993년생, 미국)은 매사추세츠 서부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랐으며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판화를 공부한 후 초기 기독교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으며, 현재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최근 전시에는 <Now it's dark and there's somebody in it>, Cassius&Co., 런던(2024)와 <I like a view but I like to sit with my back turned to it>, Fanta 밀라노(2024) 가 포함되어 있다.